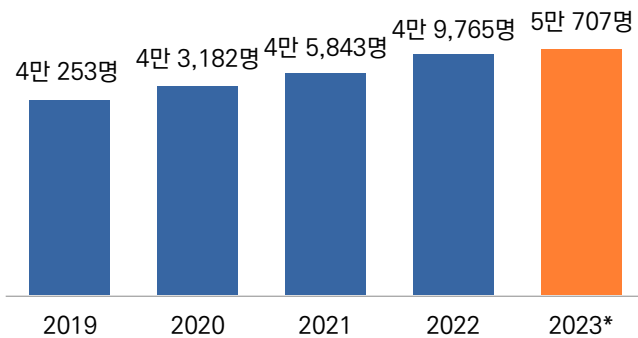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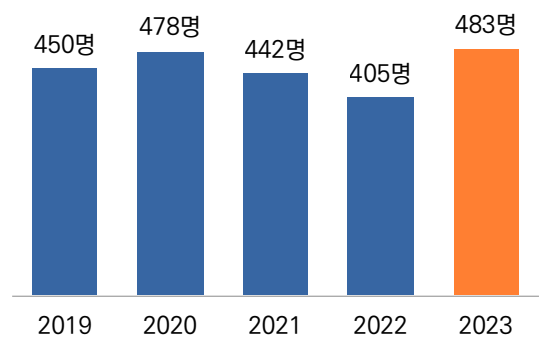
## [장기기증 현황 및 인식] 장기이식 대기자 5만 명, 기증은 연 400명대!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장기나 인체조직을 대가 없이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생존 시 대부분 가족, 친척 등에 의해 이뤄지는 '생존 시 이식'(신장 이식 등)을 제외한 '뇌사자 장기기증 수'와 '장기이식 대기자 수'의 5개년도 추이를 살펴본다.
- 장기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대기자 수는 2023년 9월 기준 5만 707명으로 매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는 2019년 450명, 2020년 478명, 2023년 48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400명대에 머물러 있다. 최근 5년간 대기자 수는 1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장기기증 수는 총 2,258명에 불과해 수급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림] 장기이식 대기자 수 (수요자)



[그림] 뇌사자 장기기증 수 (공급자)



※출처 : 연합뉴스, '장기이식 대기자 5만명 넘었는데...뇌사장기기증 매년 400명대', 2023.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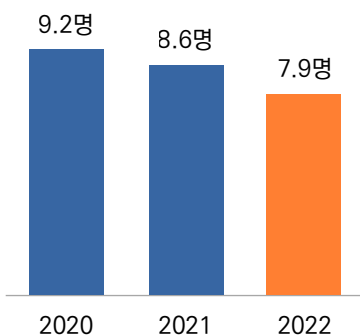
※출처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통계(월별 뇌사자 장기기증건 추이) 참조(<https://www.koda1458.kr/info/donor.do>)

\*2023.01~09.누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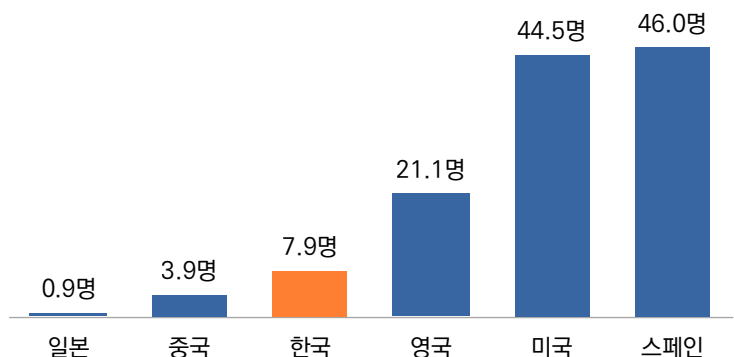
## 우리 국민의 뇌사 장기기증자 비율, 미국보다 6배 낮아

-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률의 변화는 어떠할까?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 비율인 '뇌사 기증률'을 확인한 결과, 2022년 기준 7.9명으로 2020년 9.2명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 뇌사 기증률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미국 44.5명, 영국 21.1명 등으로 주요 국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같은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일본과 중국은 우리 나라보다 더 낮았다.

[그림] 뇌사 기증률 추이  
(2022,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



[그림] 뇌사 기증률 주요국 비교\* (2022,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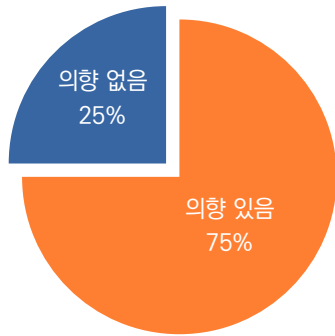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장기이식 대기자 5만명 넘었는데...뇌사장기기증 매년 400명대', 2023.11.26.

\*국제장기기증이식등록기구(IRODaT, The International Registry o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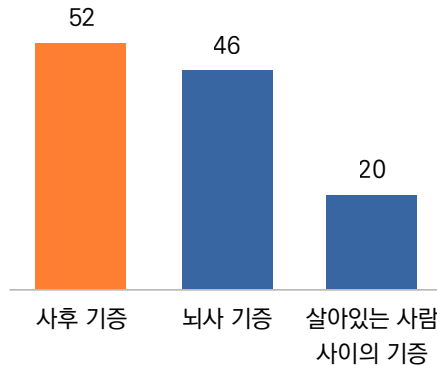
## 우리 국민 4명 중 3명, 장기기증 의향 있다!

- 낮은 뇌사 기증률의 이유를 찾기 위해 최근 발표된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인식’ 자료를 살펴본다. 우선 장기 기증 의향에 관해 묻은 결과, 우리 국민 4명 중 3명꼴인 75%가 ‘의향 있음’이라 응답했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장기기증 유형으로는 ‘사후 기증’ 52%, ‘뇌사 기증’ 46%,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기증’ 20% 순이었다.

[그림] 장기기증 의향



[그림] 장기기증 의향 유형\* (장기기증 의향자, 중복응답, %)



※출처 : 여론 속의 여론,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 2023.1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7.21.~07.24.)

\*장기기증의 유형

①뇌사 기증: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진행되는 장기기증으로, 신장, 심장, 폐, 안구 등의 장기기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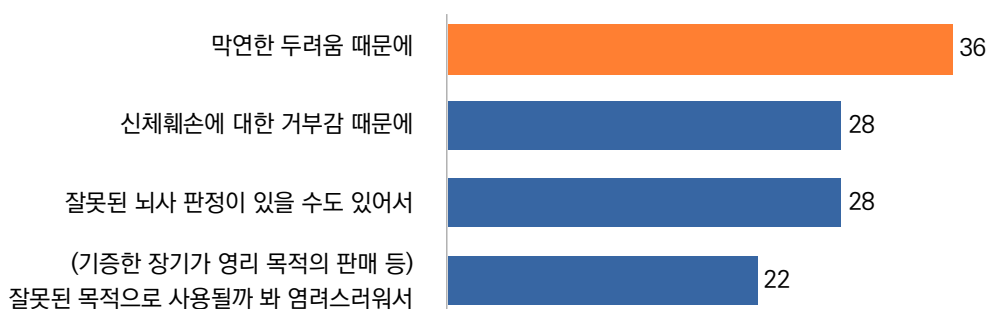
②사후 기증: 사망한 후 기증이 가능한 장기인 안구기증으로 진행

③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기증: 부부 ·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간, 혹은 타인간의 살아있는 사이의 신장, 폐, 췌장, 소장 등의 장기기증이 진행

## 뇌사 시 장기기증 망설이는 이유, ‘막연한 두려움’이 크다!

- 장기기증 의향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 ‘막연한 두려움(36%)’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신체훼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28%)’, ‘잘못된 뇌사 판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28%)’, ‘기증한 장기가 영리 목적의 판매 등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22%)’ 등의 순이었다.
- 장기기증을 망설이게 하는 잘못된 정보 인식 개선과 장기기증 의향자의 실천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뇌사 시 장기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 (뇌사 기증 의향 없는 응답자, 상위 4위, 중복응답, %)



※출처 : 여론 속의 여론,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 2023.12.06.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3.07.21.~07.24.)

### 뇌사 장기기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

뇌사 상태여도 향후 회복 가능성이 있다. (X)

뇌사 상태에서도 인공호흡기 없이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하다. (X)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수술부위 봉합 등 기증자의 신체를 온전히 수습하지 않은 채 장례를 치른다 (X)

장기기증을 하게 되면, 수술 후 기증자의 신체 이송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X)

장기기증 후 일반적인 장례절차인 염, 입관식을 진행할 수 없다. (X)